

# 지방의회제도 전면 재검토 촉구 건의안

의안 번호	8
----------	---

발의년월일 : 2002. 7. 31.  
발 의 자 : 이석래 의원의외 14인

## 1. 주 문

플뿌리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유급제를 실시하여 전문성 확보와 의회사무국 직원의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의 위상 정립과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 활동 수행을 보좌토록 하여 지방의회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2. 제안이유

- 현재의 관련 법규에 의하면 지방의회가 결정할 의사의 범위가 그리 넓지 않으며,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일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유지할 경우 능력 있고 유능한 인물이 원천적으로 배제되어 지방자치 제도의 퇴보와 지방의회를 유명무실하게 할 우려가 있음.
- 의회사무국 직원의 인사권을 의장 중심으로 사무직원의 직급 상향조정 및 지방의회직을 신설함으로써 더욱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의원의 보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 유급제 도입과 병행하여 지방의회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로 지방의회가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최고 의사결정기관이 되도록 하여 지역발전과 구민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 3. 보내는 곳

행정자치부장관

## 지방의회제도 전면 재검토 촉구건의문(안)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이고 구성원들이 지방의원들인데 대접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지방의회가 결정할 의사의 범위가 그리 넓지 않고 너무 적은 활동비를 받고 있어 품위유지가 어렵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지방의회는 법률적 의미만 보더라도 조례 제·개정 및 폐지권, 예산심의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청원처리권 등의 권한을 갖는 주민들의 대표기관입니다.

이처럼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일을 '무보수 명예직'을 유지할 경우 능력 있는 인물의 지방의회 진출을 원천적으로 막게 됩니다.

물론 유급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찬반의 의견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지만, 우리 지방의원들이 유급제를 쟁점화하고 그 의지를 굽히지 않는 것은 지방의원들의 개인적인 영달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가 진정으로 바라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과 주민들이 바라는 수준 이상의 지방의회를 육성하려면 여러 조건 중에 유급제 방안이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유급제 도입이 지방의회의 혁신적인 개혁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며 지방의회 제도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하여 지역갈등 해소 및 유능한 인사의 의회 진출 촉진을 위한 선거구제 개편 등 전면적인 개혁을 통해 지방의회의 구정 감시능력과 정책입안 능력을 높일 수 있으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상적인 수준으로 육성시키기 위한 가장 효율적이고 기초적인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방의회가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이 될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 직원의 인사권 독립을 확보시켜 자치권을 넓혀 주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된 지방의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 사하구의회의원 일동은 주민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지방자치체가 무엇인지 재검토할 것을 촉구 건의합니다.

2002. 7. 3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일동